한동대학교 제6대 대학평의원회
2016학년도 2학기 제5차 정기회의

(제5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6명

회의 일시 : 2017. 1. 18(월) 12:00 ~

회의 장소 : 현동홀 소회의실

성원

1. 참석자 (6명)

   배건웅 의장, 강사웅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유승대 평의원, 김기찬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2. 불참자 (5명)

   한윤식 부의장, 장규열 평의원, 황혜리 평의원, 최유강 평의원, 최규학 평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2016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 예산(안) 자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의 건

○ 복지동 추가 공사 차입금 신청의 건

○ 입시환경 변화와 입시 대응 전략 및 방향 보고

의결 및 토의

○ 2016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 예산(안) 자문

- 예산팀 구경훈 과장이 관련 자료와 수입 및 지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였다
- 캠퍼스 마스터플랜과 무밭부지 쪽 새 진입로 관련으로 법인에서 기부금이 전입된다는 설명에 배건웅 의장이 관련 사업비 금액(30억)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팀 정철원 계장이 왕복 2차선으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설계는 왕복 4차선으로 진행하여 향후 왕복 4차선 확장시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함을 설명하였다. 배건웅 의장이 곡강지구 개발에 따른

현 진입로를 차단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장기간 임금 동결에 대하여 현재 신임교원들이나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고 있고 이는 결국 교수 퀄러티와 연계됨을 우려하였다. 임금 동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공동체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음 회의 때 각 사업단별 예산과 교비 예산 중 중복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단별 사업과 경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음 평의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팀 구경훈 과장에게 요청하였다.(4월 ~ 5월 경에 안내하기로 함)**
  - 이에 대하여 예산팀 구경훈 과장이 사업단 예산과 교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서 개선방향을 검토해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등록금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예를 들면 방수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시설관리팀에서 정확하게 건물 유지관리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 **배건웅 의장이 유지보수 등 시설계획을 명확하게 하고 이 계획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 시설투자를 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시설관리팀에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임을 설명하였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의 건

- 상정 안건은 이견 없이 의결되었다.
- 다만, 법인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이사님들이 직접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회 안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공유가 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복지동 추가 공사 차입금 신청의 건

- 차입금 신청에 대해 관련 예산증액 내용을 시설관리팀 정철원 계장이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 특별한 이견이 없어 상정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 **입시환경 변화와 입시 대응 전략 및 방향보고**

- 이종식 입학사정관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의원들께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였다.

  ※ 자료는 대외비로 이메일이나 유인물로 배부하지 않기로 하여 PPT로만 설명함

- 배건웅 의장이 곧 학생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직전인 올해부터 입시홍보를 위하여 학교가 더 열심히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입학사정관제도가 더 강화된 것이 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① 과거에는 교수들이 학생을 직접 대면하면서 홍보에 참여하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 입시홍보에 참여하여 학생을 대면하면서 직접 만나는 방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입학 사정관이 가는 곳에는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입시홍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교수 참여로 강화하자.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여야한다.

② 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설명회에 참여하는 지역 학생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님들을 교수들이 직접 대면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도입되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에 학과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 학과(학부)별로도 입시에 참여가 필요하다.

- **<u>홍보타이밍의 중요성 강조</u>** : 한동대학교가 지방에 있지만 올바르고 좋은 학교이며 비전이 있는 학교임을 **<u>올해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u>**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진다고 본다. **<u>한동대학교는 진학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학교임에 대한 분위기 전환을 적극적인 교수참여 홍보를 통해 올해 하여야 한다</u>**.

  - 교수들이 입시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입학은 입학사정관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 현재의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서 지방에 있지만 찾아갈만한 대학이라는 개념을 불어넣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

- 학생 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입학생 절벽 현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자세는 사라져야 한다.

- **지방대라는 분위기를 역전을 시킬 수 있는 movement가 필요하다**. 금년 내로 **필요하고 학생들도 총동원되어야 한다**. **재학생이 모교 방문시 교수도 데리고 갈 필요가 있다.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 취업홍보 등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자.

- **교무회의에도 평의원회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 우리학교의 중요한 가치(사제 지간 돈독 함)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자.**
- **학생입장의 의문**
  - 한동대학교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왔는지 어떤 경쟁력 때문에 왔는지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를 통해 홍보시에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 홍보의 퀄러티와 콘텐츠에 대한 질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정말 우리의 경쟁력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환경에 맞춰서 지원해서 왔는지 실질적인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강하여 입시홍보가 교수님참여와 함께 되어야 하겠다.
- 졸업생도 사회의 인지도가 높은 동문을 초청해서 입시 홍보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한동대학교의 가치가 확산되어야 한다.
- **교수수련회 시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교수는 홍보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디폴트가 된 것도 이런 위기가 온 것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교수수련회를 기점으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자.
- **지방대라는 의식을 전환시키는 홍보전략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총장님이 칼럼을 통해 젊은 시점에 부모와 떨어져서 학업을 하는 이점이라든가 RC제도 등 지방이 나를 위한 투자임이며 이런 사고의 전환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들의 열매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문화행사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한동은 공동체라는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정부과제사업이 너무 많아 교수들 에너지가 한계점에 이르렀다.**

법인팀 확인 사항

총장인선관련 정관내용 개정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로 함

의장	배건웅	부의장	한윤식 <불참>	평의원	장규열 <불참>	평의원	황혜리 <불참>	평의원	강사웅	평의원	최규학 <불참>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김기찬	평의원	최유강 <불참>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유승대		